

차 사려면 지금 사라...12월 폭탄 세일

자동차업계 최대 500만원 할인
36개월 무이자 제공도
개소세 인하 혜택 이달말 종료
연식 변경 따른 추가 할인도

자동차를 구입하려면 지금이 적기다. 연말을 앞두고 국내 자동차업계가 12월 한 달 간 폭탄세일을 진행한다. 특히 현대·기아차의 신차 공세에 밀려 부진한 판매실적을 기록 중인 르노삼성, 한국GM 등은 주력 판매차종에 대해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이달 말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이 종료되는 탓에 이달을 넘기면 중형차를 기준으로 70만~80만원정도 가격이 오르게 된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이 이달 말로 종료될 예정이다. 혜택을 받으려면 이달 말까지 차량을 등록해야 한다"며 "혜택이 끝나는 다음달부터는 중형차를 기준으로 70만~80만원 정도 가격이 인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12월에는 자동차 메이커마다 연식 변경에 따른 재고 소진을 위한 판촉활동을 강화한다"며 "개소세 인하와 재고 소진 특전이 겹치는 연말이 자동차 구입의 최대 적기"라고 조언했다.

현대자동차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 프로모션'을 통해 주요 차종에 대한 할인 판매에 나선다. 지난달 출시된 '더 뉴 그랜저'를 제외한 구형 그랜저를 구매할 경우 10%(그랜저 하이브리드 6~8%) 할인과 1.25% 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반떼는 5~7% 할인과 1.25% 저금리, 쏘나타는 3~7% 할인과 2.5% 금리를 적용받는다. 코나와 5~7%, 싼타페는 3~5%의 할인이 들어간다.

기아자동차는 K5하이브리드에 대해 50만원 할인 또는 36개월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스텔러와 K9은 100만원 할인 또는 36개월 무이자, 할부금 지원 50만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 밖에 오는 20일까지 구매를 마치고 출고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쏘렌토 110만원, 스포티지 60만원, 카니발 50만원, 모닝과 K3는 40만원을 각각 할인해 준다. 23일부터 31일까지 출고하는 고객들은 각 차종별로 할인 폭이 10만원씩 줄어든다.

르노삼성은 신차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연말 특별 프로모션 '굿바이(Good buy) 2019'를 진행하며, 최대 500만원 파격 할인을 제공한다. SM7 가솔린 모델을 현금으로 구매하면 300만원을 지원하고 추가로 유류비 200만원을 지원한다.

2020년형 SM6 GDe와 LPe 장애인용을 구매하는 고객은 최대 250만원 상당의 구입비 지원 또는 현금 최대 200만원 지원 혜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LPe 렌터카용은 구입비 지원 50만원 또는 현금 30만원 지원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전기차 SM3 Z.E.를 현금 구매할 경우 250만원 할인을 받을 수 있고 할부로 구매하면 최대 3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쌍용자동차는 신차를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아이나비 블랙박스를 연말 선물로 지급하고 쌍용차 전시장을 찾는 방문객 전원에게 새해 탁상캘린더를 증정한다.

쌍용차 전 모델을 대상으로 노후경유차 교체 프로그램을 통해 구매할 경우 90만원을 지급한다. 경유차 여부와 관계 없이 7년 이상 노후차 보유 고객도 30만원 특별구매 혜택도 제공한다.

렉스턴 스포츠와 렉스턴 스포츠 칸을 구매할 경우 최장 72개월 할부로 3.9%, 120개월 할부로 5.9%의 이율이 적용된다. 3.9% 페스타 스페셜 할부로 구매하면 차량 가격의 2%를 할인해 준다. G4 렉스턴과 코란도, 타볼리 구매 고객은 선수를 제로 0.9~5.9% (최장 36~120개월)로 저렴한 이율 또는 장기할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3.9% 페스타 스페셜 할부(36개월 이상)로 구매하는 고객은 5%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다.

한국GM도 12월 한 달간 '아두 2019! 웨비 윈터 페스타' 프로모션을 통해 올들어 최대 규모의 혜택을 제공한다. 차종별 최대 혜택 폭은 말리부 15%, 스파크와 트랙스 10%, 카마로 9%, 이퀴녹스 7%다. 말리부 디젤을 구매하면 최대 460만원 싸게 살 수 있고, 카마로는 488만원까지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트랙스와 이퀴녹스의 최대 할인 폭은 각각 280만원, 260만원이다. 볼트 EV는 3.5%의 이율로 최대 72개월까지 가능한 할부 프로그램과 150만원의 혜택을 동시에 지원하는 콤보할부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마세라티, 21일까지 무상점검 서비스

엔진오일·타이어 등 10개 항목
새차 대상 '케어 프로그램' 론칭

이탈리안 럭셔리가 '마세라티'가 9월부터 21일까지 광주 등 전국 9개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전 차종을 대상으로 '2019 서비스 윈터 캠페인'을 실시한다. 또 12월 한 달간 출고되는 차량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마세라티 케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윈터 캠페인은 엔진오일, 트랜스미션 오일, 브레이크 오일, 냉각수, 에어필터, 타이어, 와이퍼, 브레이크 패드·디스크, 벨트류, 배터리 등 10개 항목에 대해 무상 점검한다.

서비스센터 사전 예약 후 차량을 입고 하면 더 빨리 점검받을 수 있다. 캠페인 기간 중 유상 수리도 10% 할인 혜택을 주

고, 액세서리와 머천다이즈를 구입할 때도 2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마세라티는 또 오는 31일까지 출고되는 모든 모델에 1년 동안 차량 외관 손상에 대한 수리비를 보상해준다. 제휴 금융사 리스 프로그램 이용 시 무상 제공되며, 마세라티 공식서비스센터에 입고된 1년 또는 1만2000km 차량이 수리비용 300만원 내에서 가능하다.

고객 편의와 안전을 위해 국내 도로 및 교통 환경에 특화된 한국형 마세라티 순정 내비게이션도 제공한다.

마세라티 관계자는 "윈터 캠페인은 매서운 한파가 예상되는 겨울 시즌을 앞두고 고객들이 최상의 차량 컨디션으로 안전한 주행을 즐길 수 있도록 점검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지역기업 5개사 '고성능 튜닝 벨로스터 N' 개발

광주·전남지역 자동차 부품업체 5개사가 '고성능 튜닝 벨로스터 N'을 개발했다. 이 튜닝차량은 지난 6일 영암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F1)에서 주행 성능시험도 마쳤다.



자동차연구원 프리미엄자동차연구센터와 광주·전남지역 자동차업체 5개사가 공동개발한 '벨로스터 N 튜닝 카'.

9일 한국자동차연구원 프리미엄자동차연구센터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자동차 업체 5개사는 고용노동부와 전남도 지원을 받아 '벨로스터 N 튜닝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 프로젝트에는 모터스포츠 터보차저 전문 제조사인 '워커(WALKER)', 브레이크 및 속업소버 전문 제조사인 '와츠(WATS)', 고성능 튜닝 브레이크 패드 제조사인 '프릭사(FRIXA)'와 '진흥브레이크', 국내 타이어 점유율 1위 업체인 '금호타이어' 등 5개 기업이 참가했다. 총괄은 자동차연구원 프리미엄자동차연구센터가 맡았다.

'고성능 튜닝 벨로스터 N'은 기존 배기량 2.0L 엔진을 그대로 사용한 상태에서 워커의 'Xcargot' XT30 고성능 싱글터보 시스템 장착을 통해 최대출력 364hp, 최대토크 47.0kgfm까지 올렸고, 냉각 및 내구성능 보강을 위해 주요 부위에 맞춤형 부품을 수제작해 장착했다.

향상된 출력만큼 차량의 제동 및 선회 성능 보강을 위해 와츠의 'NSSUR' 속업소버 및 브레이크 시스템을 적

용했으며, 500°C 이상 고온에서도 마찰계수 0.5이상의 제동력을 발휘하는 프릭사의 'P631' (전륜)과 진흥브레이크의 'JP1059' (후륜) 패드를 장착했다. 타이어는 금호타이어 'V70A 265/35R18'을 사용했다.

프로젝트 책임자인 정성필 자동차연구원 박사는 "벨로스터 N 튜닝을 통해 차량가격이 4배 이상 비싼 BMW M4보다 상설서킷 기준 LAP타임이 1.4초 이상 빨라졌다"면서 "앞으로 전남지역 자동차 튜닝 기업들의 높은 기술력과 품질을 적극 홍보해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연구원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총 14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다. /목포=박정욱 기자 kyl@

현대차 쏘나타 센슈어스

7박8일 시승 이벤트



현대차는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 30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차례에 걸쳐 7박8일 간 총 100명의 고객에게 시승 기회를 제공하는 '쏘나타 센슈어스 7박8일 시승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만 21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1차수의 경우 9일부터 15일까지, 2차수는 9일부터 22일까지 현대차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차수에 신청하면 된다.

현대차는 응모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총 100명의 당첨자를 선정하고, 개별 공지 방식으로 17일과 26일에 각각 해당 차종별로 발표할 계획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가까운 사람들과의 따뜻한 약속이 많은 12월, 감각적인 디자인과 역동적인 주행성능까지 갖춘 쏘나타 센슈어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시승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기아차, 첨단편의 장착한 '2020 레이' 출시

기아자동차가 안전과 편의의 사상을 강화한 '2020년형 레이'를 출시했다.

2020년형 레이에는 전방충돌 방지보조, 차로이탈 방지보조, 운전자 주의경고 등 첨단 지능형 주행안전 기술(ADAS)을 묶은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을 모든 트림에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프로젝션 헤드램프와 LED 리어컴비네이션 램프, 블랙 럭셔리 알로이 휠 등이 포함된 '스타일 패키지'와 전자식 룸미러, 운전석 전동식 허리지지대, 2열 히터 드 시트 등이 포함된 '컨비니언스 패키지'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다.

2020년형 레이에는 컬러 LCD클러스터를 적용, 운전 중 차량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8인치 스마트 내비게이션을 '멀티미디어 패키지'를 통해 선택할 수도 있다.

주력인 럭셔리 트림에 2열 6대 4 분할 & 슬라이딩 시트와 러기지 언더 트레이를 기본 적용해 공간 활용성도 높였다.

2020년형 레이에는 가솔린 모델 스탠다드 1350만원, 럭셔리 1470만원, 프레스티지 1570만원이다. 밴 모델은 스탠다드 1260만원, 럭셔리 1300만원, 스페셜 1345만원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

기농향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9년 12월호

11월 30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1인 크리에이터' 전성시대

REMEMBER & HISTORY

- 1인 크리에이터, 인기·수익 양 날개로 비상
- 나만의 콘텐츠야야 뜬다
- 크리에이터 꿈꾼다면 눈과 귀를 열어라

워라벨시대, 문화관광이 뜬다! 성과 공전의 예술도시 독일 드레스덴

클락, 문화현장! 문화강성이 발효되는 공간 담양해동문화예술촌

강재운 시인의 남도 섬과 토속음식-우여우 남도의 별미 '갑오징어 돌미나리 초무침'

2019 문화계 결산

- 문학: 조정래, 송순, 동주문학상 등 의미있는 수상
- 미술: 소통 전시로 각광받은 디자인비엔날레
- 공연: 세계스포츠 축제 무대로 동성했던 여름 공연

예향 초대석

우리 감성 무르익은 소리꾼 장사익

"노래에 인생 스며들면 깊은 울림"

문학이 숨쉬는 문학관을 찾아서! 자유를 향해 질주한 시와 생 서울 도봉구 김수영문학관

전시 화제

ACC '공작인: 현대조각과 공예 사이'전

유연준의 도시건축! 모닥불, 건축 빅뱅 불 지폈다

김정운의 '바우하우스 이야기'! '바우하우스의 부처' 클레, 재밌는 예술교육 틀 다졌다

예향이 만난 이 사람

영암 한국트롯가요센터에서 만난 하준화 K리그2 2019 우승 이븐 광주FC 감독 박진섭

승년 기획

안녕 2019, 해넘이 해맞이 명소

역사와 예술의 불꽃 보성 빛 여행

충무공 태백산맥개척의민간영웅 첨태와 독서